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를 통해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2월 첫째주는 대림절 시기로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소중한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1) - 감사와 회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5)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주시며,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야 할 저희가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준 일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준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잘못들을 용서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2) - 성탄 준비와 묵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12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시기에 성도들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천 년 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12월 첫째주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은 상업적이고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저희 성도들만큼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저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찾고 따르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이 단순히 연말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절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3) - 가정과 교회 공동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증거임을 기억하며, 더욱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해주시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저희 가정과 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터로 인도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4) -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1)

12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만국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저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주시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리를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돌아보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한 민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에 하루속히 평화가 오게 해주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기후변화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보호해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첫째주 (5) - 새해 계획과 다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12월 첫째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12월 첫째주에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부족한 계획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저희가 세웠던 계획 중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실패와 좌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주시고,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관리에도 지혜를 주시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 관리에서도 절약하고 저축하며 또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 대표기도문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새로운 다짐과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과 성경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금란교회 기도문 모음〕(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